예술인 작품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초등학생부터 노년층까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마을 사랑방 역할을 수행하면서, 청년 정착의 핵심 요소인 지역사회 융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기존 지역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강화하면서 청년 플랫폼이 지역 공동체의 허브로 자리함으로써 농촌 지역 청년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사회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었다.

> 이런 곳이 제가 지냈던 ○○군에도 있었다면,
> 어땠을까? 종종 생각하곤 해요.
> 마을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거잖아요.
> 이주민에게는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하고,
> 정주민에게는 나이와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 곳.
> 이러한 공간은 정서적 이주 연착륙에
>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Editor | 최현우

05

도시 청년들의 시골 정착 실험

소 재 지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185
단 체 명 | 협동조합 어쩌다로컬
주요내용 | 청양에 정착한 청년들이 지역 자원 기반의 고추빵 개발, 로컬 투어 기획, 네트워크 조직 등을 통해 청년 창업과 마을 공동체를 연결하며 지속가능한 로컬 모델 실현
키 워 드 | 청년 창업, 로컬 정착, 지역 활성화
추진주체 | 민간

청년들이 농촌으로 향하고 있다. 단순한 '귀촌'이 아닌, 지역과 상생하며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실험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충청남도 내륙 깊이 위치한 청양군 고요한 마을 한복판,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도시의 일상에서 벗어나 시골에서의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있는 청년 협동조합 '어쩌다로컬'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마을과 연결된 삶을 설계하며 청년 정책, 지역 자원, 창의적 콘텐츠를 결합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농업과 로컬 콘텐츠, 관광과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청년들이 청양의 미래를 다시 그리고 있다.

청년의 삶을 바꾼 어쩌다 '한 달 살기'

'어쩌다로컬'의 시작은 2021년 여름, 청양에서 진행된 행정안전부의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이었다. 참가자 중 한 명이었던 소철원 대표는 30년 가까이 서울에서 살아온 평범한 청

년이었다. 태권도 전공자로서 한 체육관에서 사범으로 일하던 어느 날,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이 경험만으로 평생을 살기엔 너무 아쉽다. 아직 어릴 때 또 다른 삶을 살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소 대표를 청양으로 이끌었다. 처음에는 청양에서 진행된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인 '한 달 살기'로 내려왔는데 당시 5명의 청년들과 팀을 이뤄 소규모 창업을 실험해보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지역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과 매력을 발견했다.

팀원들과 함께 소규모 카페를 운영했던 소 대표는 혼자 일하던 삶에서 벗어나 팀으로 무언가를 해보는 경험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었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함께 프로그램을 마친 청년들과 자연스럽게 팀이 꾸려졌다. 모두 청양과 아무 연고 없는 도시 청년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또 다른 도전이나 경험에 대한 공통의 열망이 있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2년 4월, '어쩌다로컬'이 설립됐다. 조합의 이름에는 다분히 농담 같은 우연성이 담겼지만, 실은 철저한 현실감각과 공동체 지향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청양이라는 낯선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정착을 하기 위한 첫 발걸음이었다. 당시의 경험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공동 창업이라는 실질적 행보로 이어졌고, 그렇게 자발적으로 형성된 팀이 '어쩌다로컬'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것이다.

어쩌다로컬은 단순한 청년 창업 팀이 아니라 협동조합의 형태로 출범했다. 그 이유에 대해 소 대표는 "혼자가 아니라 팀으로, 더 나아가 공동체로서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창업 아이템보다 더 중요한 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철학이 기반이 된 것이다.

로컬의 매력을 전하다

어쩌다로컬의 공동 창업자 3인은 청양에 정착해 매장 운영, 투어 기획, 농산물 유통 등 다양한 지역 연계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양한 조합원이 지역 곳곳에서 프로젝트 기반으로 활동 중이다. 정해진 조직 체계보다는 느슨한 네트워크를 지향하며, 프로그램마다 농가와 주민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한다. 특히 협동조합 설립 초기에 지역의 농부와 함께한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는 대표적인 실험 사례로서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진정성을 반영하고 있다.

어쩌다로컬의 설립 초반 활동 중 하나였던 이 프로젝트는 농가와의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됐다. 청양에 정착하면서 농촌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지역의 다양한 농가를 방문했는데, 그중 한 원목 표고버섯 농업인이 "수확한 표고버섯의 절반이 모양이 안 좋아 생으로는 팔지 못한다"라고 털어놓았다. 너무 크거나 작아도, 찢어져도 상품성이 없다는 기준은 도시에서 온 소 대표에게 큰 충격이자 호기심으로 다가왔다. "왜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될까? 오히려 다양성을 좋아할 수도 있는데."

이 질문은 곧 이야기의 씨앗이 되었다. 어쩌다로컬은 못난이 버섯들의 사연을 한 편의 이야기로 직접 집필하고, 일러스트레이터의 힘을 빌려 그림 동화책으로 엮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아기 버섯 삼형제의 모험'은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구성된 패키지로 발전했다. 이 패키지에는 동화책과 함께 해당 버섯을 요리할 수 있는 레시피 카드, 신선한 버섯 세트가 담겼고,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방식으로 대중에게 선보여졌다.

> 다시는 못할 만큼 힘들었어요.
> 하지만 이 경험이 지역에서
>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계기가 되었죠.

이 프로젝트는 단지 버섯을 판매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 소 대표는 이를 "농촌에 스며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단순히 상품을 기획한 것이 아니라, 농업인의 현실을 이해하고 도시 소비자의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해 스토리텔링이라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실제로 이 실험은 단순한 제품 판매 이상의 반응을 이끌었다. 청년 창업의 틀을 넘어 지역사회 공감 프로젝트로 주목받았고, 이후 진행된 투어 프로그램 및 농산물 브랜딩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후 어쩌다로컬의 활동은 한 걸음 더 나아가, 2022년 7월 청년의 '삶 실험'을 중심에 둔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도시 청년이 시골에서 살아보는 콘셉트의 '어쩌다 민박'은 2주 동안 청양 마을 숙소에 살면서 마을 체험, 농가 방문, 주민 교류 등 농촌 현장을 생생히 경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이후 보다 짧은 4박 5일의 기간 동안 농촌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압축형 프로그램 '부캐(副Character) 힐링 투어'를 잇달아 개발했고, 투어에 대한 정체성을 담기 위해 '소도시 탐험대'라는 투어 브랜드를 만들었다. 이들이 기획

어쩌다로컬 투어 프로그램 활동



한 투어 프로그램은 도심 청년들에게 시골살이의 기회를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로 4년째 진행 중인 투어 프로그램은 누적 참가자 500명, 누적 투어 일수 120일을 기록하며, 일시적인 체험을 넘어 시골에서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실험의 장이 되고 있다.

어쩌다로컬은 단순한 농촌관광이 아닌 농가 일손 돕기, 밤 줍기, 양봉 체험, 마을 주민과의 저녁 식사 등 지역과 밀접한 체험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 청년과 마을 간의 관계 형성을 도모하고 있다. 주민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농가와의 협력을 통해 체험 코스를 운영하며, 각종 피드백을 수렴해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데도 적극적이다. 이러한 활동은 충청남도 및 청양군의 청년 및 관광 관련 지원 사업과 연계되어 참가자들은 일정 금액만 부담하고, 프로그램 대부분은 공공 재원으로 운영된다.

정착과 공동체, 지속가능성을 위한 고찰

어쩌다로컬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한 가지 고민에 빠졌다. 농촌 체험만으로는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수익 사업을 병행하기로 하고 지역 자원인 고추를 활용한 '청양 고추빵' 개발에 나섰다. 지역의 상징과 맛으로 표현한 이 빵은 실제 고추 모양과 매콤한 맛을 특징으로 하며, 단기간에 입소문을 타고 관광객의 발길을 끌게 되었다. 고추빵을 판매하는 매장은 '찰리와 고추빵 공장'으로 이름 지었다. 농촌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의 재치있는 매장이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브랜딩했다고 한다. 매장에 들어서면 강렬한 빨간색과 흰색을 테마로 한 스트라이프 소파와 컬러풀한 의자들이 시

찰리와 고추빵 공장 매장





청양 고추빵



로컬 창업 힐링 투어





선을 사로잡는다. 한편에는 고추를 모티브로 만든 상품들이 전시되어 단순한 소비 공간이 아닌 체험형 브랜드 스토어 느낌을 준다. 어쩌다로컬의 브랜드는 이후 언론과 유튜브 등의 미디어 노출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인지도가 높아졌다. 처음에는 테이블 하나 없는 작은 공간에서 시작했지만, 방문객이 늘어 최근에는 확장 이전까지 했다. 이전한 매장은 카페 형태로 운영 중이며, 빵 외에도 음료와 지역 특산물(고추) 연계 상품(볼펜, 모자, 티셔츠 등)을 함께 판매하여 수익 다각화를 도모하고 있다.

'어쩌다로컬'의 목표는 단순한 창업을 넘어선 지역에서의 정착이다. 이들에게 청양은 일터인 동시에 삶터이다. 이들은 고추빵을 시작으로 자신들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청년 창업 부트캠프(Boot camp) 투어를 기획하고, 나아가 새로운 창업가들이 청양고추를 주제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하나의 '청년 거리 상권'을 조성하는 것을 장기적인 비전으로 삼고 있다. 단일 매장 중심의 수익 구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하에 유입된 청년 창업가들과 함께 일식·중식·분식 등 청양고추를 테마로 한 거리 상권을 구상 중이다. 이들은 '브랜드 중심 상생 모델'을 구체화하며,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어쩌다로컬은 시골살이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것을 넘어 지역에 정착한 청년 창업가들을 잇는 지속 가능한 연대를 꿈꾼다.

> 청양엔 저희처럼
> 귀촌하거나창업한 청년들이 꽤 있어요.
> 그런데 그동안 서로 아무런 연결이 없었죠.
> 각자 고군분투하고 있던 거예요.

지역에 연고가 없는 청년들이 시골에서 창업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정보도, 자원도,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부족하다. 그런 상황에서 어쩌다로컬은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청년 창업가들을 모아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청양에 있는 청년 창업가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서로의 아이디어를 나누고, 실패 경험을 공유하며, 마을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한다. 단순한 지역 내 청년들의 친목을 넘어 실제 협업으로 연결되는 실용적 연대다.

또한 소 대표는 청양에 처음 정착하며 관계를 맺은

청양 사회적 네트워크의 이사로 참여하면서 청년과 마을, 기업이 함께 사는 길을 찾고 있다. 그 대표 사례가 바로 '로컬 창업 힐링 투어'다. 도시 청년들이 팀을 이뤄 "내가 이 마을에서 창업한다면 어떤 아이템을 시도해 볼 수 있을까?"를 주제로 2박 3일간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발표한다. 지역사회와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것 역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소 대표는 이를 "지역을 알아가고 관계를 맺는 씨앗을 심는 일"이라고 말한다. 어쩌다로컬은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정보 교류와 정기 프로젝트를 기획·운영하는 등 건강한 로컬 커뮤니티 구축에 힘쓰고 있다.

> 농촌에서 외부인은 정보 하나 얻으려면
> 몇 번을 거쳐야 하고
> 사람 하나 소개받기도 어렵습니다.
> 그 시간과 에너지를 줄여주는 게
> 네트워크의 힘이죠.

이들은 단순히 보조금에 기대는 구조가 아닌, 자생 가능한 지역 모델을 추구한다. 2024년 어쩌다로컬 협동조합은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으며, 지역 자원을 활용한 제품 개발, 관광 콘텐츠 개발,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다양한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관계 인구'[5] 개념을 통해 일회성 방문이 아닌 지속 가능한 도농 교류 기회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청년 유입을 위해 단기적 성과를 요구하는 정책보다는 관심의 씨앗을 뿌리고, 연결의 루트를 열어주는 일이 더 중요하다. 실제로 이들은 다양한 계층과의 접점을 통해 도시와 농촌 간의 징검다리 역할을 자원하고 있으며, 지자체에 대한 의존적 자세보다는 파트너십을 지향한다. 지자체의 지원을 당연하게 여기기보다 기회로 받아들이고, 주도적인 자세로 지역에 뿌리내리기를 선택한다. "지원은 감사의 대상이지 요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념은 시골에서 자립하고자 하는 청년 창업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한다.

소 대표는 "정책 지원을 받기 위해 지역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끊긴다고 해서 떠날 생각은 없다"라고 말한다. 그는 청년들에게도 "정책은 가능성을 여는 수단일 뿐 목표가 되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청년이 농촌에 스며드는 방식

어쩌다로컬은 그저 빵을 만들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조직이 아니다.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함으로써 도시 청년들에게는 '농촌에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농촌에는 '청년과 함께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실험실'을 만들어냈다. 청년 창업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역과 함께 숨 쉬는 생태계가 되어야 한다.

> 우리가 살아남아야 지역이 살고,
> 지역이 살아야 우리가 머물 수 있어요.

어쩌다로컬은 그 이름처럼 우연한 시작으로 출발했지만, 그들이 걸어온 길은 치열한 의지와 실험의 연속이었다. 이들은 지역과 청년 모두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도시 청년들이 시골로 향하는 일은 단순한 이주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을 실험의 공간으로 삼고, 관계를 형성하며, 지역 자원으로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로컬 크리에이터'의 길이 아닐까 싶다.

어쩌다로컬은 농촌이 도시 청년에게 낯선 공간이 아닌 '도전의 무대'가 될 수 있음을, 그리고 농촌 안에서도 지속가능한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 우연한 만남이 만든 실험은 앞으로도 농촌의 가능성을 한 뼘 더 확장해 나갈 것이다.

Editor | 정선화

5) 어쩌다로컬 협동조합과 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거나, 어쩌다로컬의 프로그램을 통해 청양과 관계를 맺고 활동하는 인구를 의미한다.